

바울의 제자도에 나타난 사회적 영성* **

- 덕 윤리적 접근

문시영 (남서울대, 교수)

I. 들어가는 말

II. 바울의 공동체적 제자도와 사회적 영성

1. 바울 르네상스에 편승한 덕 윤리적 접근
2. 덕 윤리로 읽는 바울의 제자도와 사회적 영성
3. 의의와 한계, 그리고 과제

II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2.52.01>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2A01042172)

** 사회적 영성이라는 표현은 김진호 외, 『사회적 영성』(서울: 현암사, 2014); 송창현, “사회적 영성으로의 초대,” 『가톨릭평론』1(2016), 215~222; 박명림, “사회적 영성, 내면윤리의 사회적 구상,” 〈복음과 상황〉 2017.1.26일자 등을 참고했다. 이 글에서는 기독교윤리학의 관점에서, 공감, 환대, 책임, 소통의 가치들이 제자도에 근거한 것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제자윤리’로 읽어내고자 한다.

• ABSTRACT •

Paul on Discipleship and Social Spirituality: Virtue Ethical Approach

Moon, Si-Young (Professor, Namseoul University)

In the context of growing interest in social spirituality, such as concern on empathy and hospitality, this article pursues the ethics of disciple in civil society by focusing on Paul's Christian ethics. This article reinterprets Pauline discipleship from the perspective of virtue ethics while riding on the 'Paul Renaissance', which is actively developing centering on the humanities and the New Testament studies. For Paul, discipleship is a community-based ethics which involves the social spirituality of public responsibility, communication, empathy, and hospitality. Korean Christianity should overcome the privatization of faith and realize the discipleship of civil society by paying attention to the social spirituality shown in Paul.

Key words: Discipleship, Social Spirituality, Community, Virtue Ethics, Paul

I. 들어가는 말

팬데믹 이후 한국기독교가 회복해야 할 어젠더를 다루는 연구들이 붓물 터지듯 많아졌지만, 과연 무엇을 회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불명확해 보인다. 예를 들어, ‘번영의 복음(gospel of prosperity)’을 추구하던 옛 모습의 회복을 전제하거나 잘되는 영성에 집착하는 것은 자칫하면 신앙의 사사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오히려, 윤리의 성숙을 추구해야 마땅하다. 이 글에서 ‘사회적 영성(social spirituality)’을 한국기독교가 회복하고 성숙시켜야 할 과제로 제안하면서 그 근거를 바울의 ‘제자도’에서 찾아내려는 이유이다.

이 논의를 위해 질문할 것이 있다. 환대, 공감, 그리고 공공성에 입각한 소통과 공적 책임은 한국기독교에 낯선(strange) 것 내지는 이질적인 것일까? 혹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것이어서 마지못해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 이 글은 한국기독교에 절실히 요청되는 공감과 환대, 그리고 공적 책임과 소통의 윤리를 ‘낯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제자윤리’로 풀어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12:17)는 바울의 권면이야말로 공감과 환대에 관한 기독교적 가치를 상징한다. 환대의 문제는 손대집에 관한 바울의 권면들에서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관점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관해서이다. 이 글에서는 덕 윤리(virtue ethics)의 접근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른바 ‘바울 르네상스’에 편승하면서, 덕 윤리와의 접점을 찾아 적용함으로써 바울의 제자도를 시민사회의 제자윤리로 읽어내려는 취지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와 데리다(Jacques Derrida)의 공감과 환대의 윤리에 대한 신학적 관심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상을 비롯하여 ‘바울 르네상스’에 대한 관심은 의의가 크다. ‘새 관점

학파'가 바울의 재발견을 다루고 있으며, 현대신학자들과 인문학자들이 바울에게 관심을한다는 점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제닝스(Ted W. Jennings)의 바울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읽기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바디우(Alain Badiou)와 아감벤(Giorgio Agamben)을 비롯한 인문학자들이 바울을 재조명하고 있다는 사실 등은 중요한 참고사항이다. 이러한 흐름에 관심한다면 환대와 공감, 공적 책임과 소통에 관한 논의를 심층적으로 풀어낼 가능성이 커질 수 있겠다.

이러한 흐름에 유의하면서, 이 글에서는 '제자도에 근거한 사회적 영성'을 모색함으로써 공감, 환대, 책임, 소통의 사회적 영성을 기독교 고유의 자원에서부터 재론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제자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한국기독교가 제자훈련에 익숙해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교회의 윤리성숙을 위한 단초로 삼으려는 취지이다. 제자훈련이 과연 제자도를 바르게 구현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사회적 영성이 한국기독교에 낯선 그 무엇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회적 영성의 복원을 제안할 통로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공적 책임과 소통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이웃 되기'를 추구하고 공감과 환대를 통하여 '타자 되기'를 지향하는 모색 자체가 제자도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1) 이 글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제자도를 계승한 바울의 관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공감, 환대, 공공성에 입각한 소통과 공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영성이 바울의 제자도를 통하여 공동체적 관심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착안한 셈이다. 이러한 뜻에서, 이 글은 바울의 제자도가 지닌 공동체적 특성에 관하여, 그리고 공동체적 제자도에 근거한 사회적 영성에 기독교 덕 윤리의 통찰을 적용함으로써 한국기독교의 윤리적 성

1) 문시영, "사회적 영성의 기원과 복원: 선한 사마리아인 제자도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49(2021), 205~237.

속에 기여하려는 시론(試論)이다.

II. 바울의 공동체적 제자도와 사회적 영성

1. 바울 르네상스에 편승한 덕 윤리적 접근

제자도에 근거한 사회적 영성의 모색과 관련하여 바울의 경우에 마주하게 되는 난제는 그가 명확한 용어로 제자도를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바울의 제자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문헌의 확보 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한다.²⁾ 이 부분에서, 덕 윤리는 중요한 우회로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³⁾ 이른바 바울 르네상스에 ‘편승(便乘)’하면서 덕 윤리가 쓸 수 있는 제자도 해석의 가능성을 응용하려는 우회전략인 셈이다.

바울의 제자도에 관한 논의에서 바울 르네상스는 중요한 선행연구라고 할 수 있다. 바울 르네상스라고 이름 붙여진 현상에는 바울에 관한 새 관점(new perspective)과 인문학적 관심도 포함된다. 우선, 새 관점 학파에서는 “바울사상을 구원의 서정(ordō salutis)이라는 틀로 추적해온 경향을 넘어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접근법”에 관심을 둔다.⁴⁾ ‘후기 새 관점(the new post-new perspective)’으로까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흐름을 일별하는 것 자체가 버거워 보인다.

새 관점에 대한 찬반여부를 떠나서, 바울의 윤리에 대한 관심이라는

2) 바울의 제자도에 관하여 조연해준 익명의 신약학자 두 분께 감사한다. 바울의 신학에 관한 논의에서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

3) 바울의 제자도에 관한 문헌을 찾기 어려운 정황과 달리, 바울에 대한 덕 윤리의 관심은 결코 작지 않다. Joseph J. Kotva Jr., *The christian case for virtue ethic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97); Daniel J. Harrington and James F. Keenan, *Paul and Virtue Ethics: Building Bridges Between New Testament Studies and Moral Theology* (Lanham, MD: Rowan & Littlefield Publishers, 2010) 등을 참고할 수 있다.

4) Scot McKnight and Joseph B. Modica, eds., *The Apostle Paul and the Christian Life*, 최현만 역,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인의 삶』(평택: 에클레시아북스, 2018), 15.

사실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새 관점 혹은 옛 관점 중 하나만 고집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칭의를 강조하면서 성화에 대한 관심이 약해지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보다 개인주의화된 점은 문제”라고 말한 것도 하나의 예가 되겠다.⁵⁾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삶에 관심하게 한다는 주장,⁶⁾ 바울에게는 성령에서 도출된 교회 중심의 윤리가 있었으며 그의 윤리는 교회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었다는 주장도 눈에 띈다.⁷⁾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바울의 윤리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행연구일 수 있겠다.

바울 르네상스의 또 다른 축으로, 바울에 관한 인문학적 관심 또한 중요한 선행연구이다. 들뢰즈(Gilles Deleuze)의 것으로 전해지는 표현처럼 바울이 ‘개념적 페르소나’로 등판하고 있는 흐름에서, ‘바울적 계기들(Pauline moments)’에 대한 인문학자들의 관심 또한 바울의 윤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촉구하는 도전이기 때문이다. 법으로 환원불가능한 정의, 빛을 넘어서는 의무, 경계를 넘어서는 증여, 무조건적 환대를 통해 해체의 윤리적·정치적 지평을 확장한 데리다를 비롯한 인문학자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제닝스가 데리다의 해체(deconstruction)에 관한 논의를 소환하여 ‘무법적 정의 혹은 법 밖의 정의(outlaw justice)’를 다룬 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반향이다. “바울의 본래적인 모습을 되찾는 노력은 신학이나 인문학은 물론이거니와 바울이 이룩한 메시아적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라는 점에서,⁸⁾ 그 의의는 분명하다.

나아가, 바디우가 바울을 통해 “차이와 불평등을 넘어서는 독특한 보편성

5) Patrick Mitchel, “새 관점과 그리스도인의 삶: 오직 성령으로,” 위의 책, 146.

6) Timothy G. Gombis,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새 창조 백성에 참여하기,” 위의 책, 218.

7) Scot McKnight, “새 관점과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적 삶,” 위의 책, 259.

8) Ted W. Jennings, *Reading Derrida: Thinking Paul*, 박성훈 역, 『데리다를 읽는다 바울을 생각한다』(서울: 그린비, 2014), 378.

을 추구할 사건적 주체로서의 바울에 주목"한 부분도 놓칠 수 없다. 또한 아감벤이 "율법의 작동을 중지시키는 메시아적 소명의 힘과 인위적 주체화를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탈주체적인 무위화의 전략을 강조"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바울적 주체를 통하여 현대사회에서의 주체와 윤리적 가능성의 구성에 관심하려는 시도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⁹⁾ 이처럼, 바디우와 아감벤 등의 인문학적 관심을 통해 현대적 맥락에서의 바울윤리의 중요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바울 르네상스가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더 많은 논의들이 기대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바울의 '제자도에 근거한 사회적 영성'을 모색하는 것은 바울 르네상스를 한국기독교의 윤리성숙과 접맥시키려는 취지이다. 새 관점 학파가 성화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고 인문학적 접근이 사회적 어젠더를 다룬 것은 의의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바울의 제자도에 나타난 사회적 영성을 살펴보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사회의 제자윤리'에 대한 모색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사회적 영성에 대한 산발적 논의들을 기독교윤리학에 통합하여 시민사회에서의 제자됨의 윤리를 추구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2. 덕 윤리로 읽는 바울의 제자도와 사회적 영성

1) 다른 용어로 표현된 제자도

바울 르네상스에 편승하면서도 다른 길을 찾는 과정에서 주목하는 것은 덕 윤리의 관점이다. 예를 들어, 새 관점학파에서 주목을 받는 인물인 라이트(Nicholas T. Wright)가 성품과 덕에 관심한다는 사실은 중요해 보

9) 김용규, "주체와 윤리적 지평: 바디우와 아감벤의 바울론을 중심으로," 『새한영어영문학』 51-3(2009), 87~116.

인다. 그가 『그리스도인의 미덕』(*After you believe: Why Christian Character Matters*)에서 맥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와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에게 빚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덕 윤리와 성품의 문제에 관심한 것은 고무적이다. 믿은 후에(after you believe) 성품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¹⁰⁾ 바울 르네상스가 바울 윤리에 대한 재론을 촉발시킨 배경이라면, 덕 윤리는 바울 윤리에 대한 연구가 주목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준다고 할 수 있다.

신약학과 윤리학의 시너지를 위해 덕 윤리에 주목하는 관점에 따르면, 성품과 덕에 대한 관심은 바울의 윤리를 읽어낼 탁월한 ‘렌즈’를 얻는 것과도 같다.¹¹⁾ 덕 윤리의 문제의식 즉 우리는 누구이며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입하면, 바울의 회심은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이며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다. 이 질문에 바울은 “그리스도께 회심한 제자(converted disciple of Christ)라고 답한다.”¹²⁾ 제자도는 덕 윤리의 컨텍스트로서,¹³⁾ 제자됨(being disciple)의 의미를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의 함양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할 단초가 마련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선행연구들이 바울 윤리에 대한 관심을 재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에 관심할 것인지를 다루지 못했던 취약점을 덕 윤리가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암시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앞에 언급한 우려를 재론할 필요가 있다. 바울윤리의 연구에서 제자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만으로 바울이 제자도에

10) Nicholas Tom Wright, *After you believe: why Christian character matters*, 흥병릉역, 『그리스도인의 미덕』(서울: 포이에마, 2010), 56.

11) Daniel Harrington and James Keenan, *Paul and Virtue Ethics: Building Bridges between New Testament Studies and Moral Theology* (Lanham, ML; Row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2), xi.

12) 위의 책, 21.

13) 위의 책, 49.

무관심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바울이야말로 복음에 충실한 제자다움을 살아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질문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바울이 ‘다른 용어들’을 통하여 제자도를 계승했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 제자도는 예수께서 세우신 것이지만, 인물과 시대에 따라 제자도를 계승하는 방식과 방점이 달랐다는 뜻에서 말이다.

제자도는 기독교의 사상과 삶, 그리고 사역의 핵심주제로서, 바울에게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제자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성에 관하여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¹⁴⁾ 서신서와 계시록에 제자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제자도의 중요성이 삭제되었거나 제자도의 변질이 발생해서도 아니다. ‘다른 용어로의 전이’가 나타났을 뿐이다.¹⁵⁾ 제자라는 용어 외에 성도, 형제, 종,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의 교회 등이 그것이다.

론제네커(Richard N. Longenecker)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제자도는 그리스도인의 자기이해와 실천의 유형이다. 그리고 복음서의 제자도, 바울의 제자도, 그리고 공동서신의 제자도는 연속성 안에서의 다양성(diversity within continuity)을 지닌다.¹⁶⁾ 심지어 바울의 제자도에서도 연속성 안에서의 통일성이 나타난다. 서신들마다 강조점이 다르다는 점은 다양성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서에서 ‘거룩’을 강조하는 제자도로 나타나고 고린도서의 제자 개념은 ‘본받는 자’로 사용된다.

이러한 다양성은 연속성에 속한다. 그리스도께 대한 충실함(conformity

14) Richard N. Longenecker, "Introduction," in Richard N. Longenecker, ed., *Patterns of Discipleship i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6), 1.

15) Michael J. Wilkins, *Following the Master*, 황영철 역, 『제자도 신학: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도』(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5), 429.

16) Richard N. Longenecker, "Introduction," in Richard N. Longenecker, *Patterns of Discipleship in the New Testament*, 6.

to Christ) 혹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공유한다. 말하자면, ‘십자가를 본받는 삶’(cruciformity)이다.¹⁷⁾ 고먼(Michael J. Gorman)에 따르면, 바울의 목표는 영성의 형성(spiritual formation)이었으며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십자가 체험이 있었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conformity to the crucified Christ)을 뜻한다.¹⁸⁾

이 글은 바울에게서 발견되는 ‘다른 용어로 표현된 제자도’에 대한 논의들을 참고하면서, 특히 덕 윤리의 관점을 응용하여 바울의 제자도를 재론하고자 한다. 제자됨에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의 질문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제자도의 도덕적 측면 혹은 도덕적 제자도(moral discipleship)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⁹⁾ 코트바(Joseph Kotva, Jr.)가 바울서신과 덕 윤리 사이에 다층적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말한 부분 또한 참고할 요소이다.²⁰⁾ 무엇보다, 덕 윤리의 기독교 버전(Christian case for virtue ethics)을 대표하는 하우어워스는 더욱 중요하다. 예수 내러티브에의 충실함을 강조하며 성품의 함양에 관심하는 것은²¹⁾ 바울을 제자도 이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17) Michael J. Gorman, *Cruciformity*, 박규태 역,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서울: 새물결플러스, 2010), 17.

18) 위의 책, 19~20.

19) Kent A. Van Til, *The Moral Disciple*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2), 6.

20) Joseph Kotva, Jr., *Christian case for virtue ethics*, 문시영 역, 『덕 윤리의 신학적 기초』(성남: 공휴, 2012), 187~206.

21) Stanley Hauerwas, *A Community of Character*, 문시영 역, 『교회됨』(성남: 북코리아, 2010), 30.

2) 덕을 세우는 공동체 제자도

바울에게서 ‘다른 용어로 표현된 제자도’는 ‘공동체적 제자도’로 확장된다. 뱅크스(Robert J. Banks)가 말한 것처럼, 바울의 두드러진 공헌은 무엇보다도 그의 공동체 사상에 있다.²²⁾ 그리고 그 핵심은 공동체의 정체성 내지는 근간에서 찾을 수 있다. 복음을 통해 세워진 제자공동체가 그것이다. 바울이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사실에 유의해야 하는 이유이다.²³⁾

뱅크스의 바울 해석이 에클레시아를 가정모임으로서의 교회에 치중한 것에 대한 비판적 관점까지 포함하여 공정하게 읽어야 하겠지만, 바울의 에클레시아가 단순한 회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서 아가페 중심의 공동체였다는 점은 분명하다.²⁴⁾ 동서양의 그것처럼 이미 있는 공동체에 새로운 특성이나 실천의무가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의해 창조된 공동체이다. “개별적인 ‘나’가 공동의 ‘우리’로 받아들여지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각 구성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치시키는 새로운 공동체이다.”²⁵⁾

덕 윤리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바울의 공동체사상이 지닌 독특성은 내러티브의 문제로 설명할 수 있다. 맥킨타이어의 관점에서부터 역추적해보자. 그에 따르면, 인간은 공동체 안에 있도록 지음을 받았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풍요로워지고 인간다워진다.²⁶⁾ 그리고 하우어

22) Robert Banks, *Paul's idea of community*, 장동수 역, 『바울의 공동체 사상』(서울: IVP, 2020), 23.

23) 위의 책, 47.

24) 위의 책, 105.

25) John M. G. Barclay, *Paul and the Power of Grace*, 김형태 역, 『바울과 은혜의 능력』(서울: 감은사, 2021), 287.

26) Christine D. Pohl, *Living into Community*, 권영주 외 역, 『공동체로 산다는 것』(서울: 조이선교회, 2021), 9.

위스의 기독교 덕 윤리에서 예수 내러티브에 기초한 공동체로 설명된다.²⁷⁾

사실, 바울에게서 공동체들이 지닌 다양하고 우발적인 변수들의 배후에는 단 하나의 “일관된(coherent) 복음이 놓여있다. 바울은 신앙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만드시는 이야기 속에 있다고 보았다. 바울의 공동체에서 내러티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이야기이다.”²⁸⁾ 말하자면, 성경은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한 서사구조(narrative framework)를 제공한다.²⁹⁾

예수 내러티브에 기초한 공동체 개념은 ‘다른 용어로 표현된 제자도’ 즉 십자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공동체와 연결된다. 제자의 삶은 “나와 예수”에 초점을 맞추어 사사로운 관점에 흐르지 않고 공동체로 확장되어 십자가를 본받는 삶은 공동체”로 이어져야 한다.”³⁰⁾ 이러한 뜻에서, 바울의 관점을 공동체적 제자도라고 읽는 이유는 라이트와 하우어위스의 응용을 통해서 더 분명해진다. 라이트에 따르면, “바울은 교회를 덕 실천의 장으로 생각했으며, 기독교적 행위는 일종의 단체경기 내지는 팀 스포츠와도 같다. 덕을 추구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 노력하는 공동체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현시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산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³¹⁾

하우어위스의 용어를 쓰면, 바울의 제자도는 ‘성품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담’

27) Lorraine Besser-Jones and Michael Slote, eds., *The Routledge Companion to Virtue Ethics* (New York, NY: Routledge, 2015), 227.

28) Richard B. Hays, 『신약의 윤리적 비전』, 87.

29) Richard B. Hays, “The Role of Scripture in Paul’s Ethics,” in Eugene H. Lovering, Jr. and Jerry L. Sumney eds., *Theology and Ethics in Paul and his Interpreters* (Eugene, OR: Wipf & Stock, 2017), 46.

30) Michael J. Gorman, *Cruciformity*, 박규태 역,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 604.

31) Nicholas Tom Wright, 『그리스도인의 미덕』, 361.

이라는 맥락으로 확장된다. 기독교공동체주의(Christian Communitarianism)라고 할 수 있는 하우어위스의 덕 윤리에는 교회윤리(ecclesial ethics)라는 별칭이 붙는다. 성품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예수 내러티브를 살아내고 전하는 공동체로이어야 한다는 뜻이다.³²⁾

성품의 공동체에 대한 이해에서, 바울의 공동체적 제자도는 그리스도인의 성품 함양 혹은 성숙을 목표로 한다.³³⁾ 바울은 교회들을 설립하고 돌보는 과정에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시키고자 했다.³⁴⁾ 바울의 공동체에 대한 주된 관심은 공동체의 도덕적 형성(moral formation)이었으며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의 영성을 함양하는 것이었다.³⁵⁾ “신앙인의 변화(metamorphosis)야말로 바울 사역의 궁극적 목표였으며 바울의 도덕적 권면들은 공동체의 변화를 위한 수단이었다. 종말에 이루어질 궁극적 변화의 전주곡으로서 현재에서의 도덕적 메타모포시스를 추구했다.”³⁶⁾

공동체는 구성원의 성품함양을 위한 에토스를 통하여 윤리적 결단을 인도함으로써, 공동체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형성한다.³⁷⁾ 이러한 뜻에서, 바울의 덕 윤리는 믹스(Wayne M. Meeks)가 말한 것처럼, 공동체에 기초한(community-based)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³⁸⁾ 이렇게 보

32) Stanley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1), 99-100.

33) Robert Banks, 『바울의 공동체 사상』, 127.

34) Daniel Harrington and James Keenan, *Paul and Virtue Ethics: Building Bridges between New Testament Studies and Moral Theology*, 58.

35) Michael J. Gorman,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 19-20.

36) James W. Thompson, *Moral Formation according to Paul: The Context and Coherence of Pauline Ethics*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11), 2.

37) Bruce W. Longenecker and Todd D. Still, *Thinking Through Paul*, 박규태 역, 『바울: 그의 생애 · 서신 · 신학』(서울: 성서유니온, 2019), 648.

38) Wendell L. Willis, “Bibliography: Pauline Ethics, 1964-1994,” in Eugene H. Lovering, Jr. and Jerry L. Sumney eds., *Theology and Ethics in Paul and his*

면, 바울의 관점은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의 함양 즉 제자됨을 위한 공동체이다. 특히, 세움(upbuilding)의 개념은 신약의 교회를 설명하는 중요한 관점의 하나로서,³⁹⁾ 이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오이코도메 윤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세움의 윤리이기 때문에 공동체윤리이며,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 및 성숙을 위한 윤리”이다.⁴⁰⁾ 다시 말해, 교회의 목적은 공동체 안에서 성숙하고 덕을 세우는 데 있으며, 공동 참여와 공동책임에 성장을 위한 책임도 여기에 포함된다.⁴¹⁾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갈5:22~23)를 비롯한 바울의 덕에 관한 권면들은 오이코도메의 윤리와 긴밀하게 연관된다. 바울이 제시한 덕목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한 것으로서, 바울 고유의 관점이 담겨있다.⁴²⁾ 바울의 목록은 그레코-로만 및 유대교의 그것과 다르며 “그리스의 4주덕은 언급하지도 않는다. 바울의 악덕과 덕목들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관계에 초점이 맞춰진다. 악덕은 공동체에 반하는 것들이며 교회 안에서 구성원들을 배려하는 것이 긍정적인 덕목으로 제시된다.”⁴³⁾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오이코도메를 위한 덕목들은 행위자의 의무를 열거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행위자의 성품함양이 본질이다. 바울은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한 제자됨 즉 십자가를 본받는 삶으로서의 제자됨을 위한 성품의 함양을 추구한다. 이러한 제자됨의 공동체적 성품함양

Interpreters, 314.

39) Herman Ridderbos, trans. by John Richard De Witt,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5), 429~432.

40) 현경식, “바울의 오이코도메 윤리,” 『신약논단』10-2(2003), 367~389.

41) Robert Banks, 『바울의 공동체 사상』, 239.

42) Victor Paul Furnish, *Theology and Ethics in Paul* (Louisville, K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9), 86~88.

43) James W. Thompson, *Moral Formation according to Paul: The Context and Coherence of Pauline Ethics*, 109.

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이 있다. 공동체 안에서 덕을 추구하는 것은 도덕 행위자(moral agency)로서의 인간의 노력에 의해 가능한 것일까? 사실, 도덕 행위자의 문제는 롬7:19에 나타난 바울의 탄식에서 볼 수 있듯이 기독교윤리의 오래되고 험난한 과제이다.⁴⁴⁾ 기독교 덕 윤리에서 은혜의 중요성에 관심해야 할 부분이 이곳이다. 은혜에 대한 강조야말로 바울의 관점을 제자도의 계승이자 공동체적 확장으로 읽어낼 또 하나의 단초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바울의 공동체적 제자도와 관련하여, “실현가능한 것이었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그의 노력이 실패한 경우들도 있으나, 바울이 지속적으로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⁴⁵⁾ 바울의 공동체적 제자도에 주목하는 것은 오이코도메의 윤리를 공동체에 대한 옹호의 논리로 읽으려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와 성품함양의 맥락에서 바울의 제자윤리를 재발견하려는 취지이다.

3) 바울의 제자도에 나타난 사회적 영성

(1) 책임과 소통의 제자 공동체 되기

바울의 영성을 몇 개의 표상으로 압축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지만,⁴⁶⁾ 공동체로 확장된 제자도에 나타난 ‘사회적 영성’을 살펴보는 것은 바울윤리의 재발견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공감, 환대, 공적 책임, 그리고 소통 등을 아우르는 사회적 영성은 바울의 경우에 공동체적 제자도에 근거한다. 퍼니쉬(Victor P. Furnish)가 말한 것처럼, ‘비판적 참여’

44) Lisa Sowle Cahill, “Afterword,” in Daniel K. Finn, ed., *Moral Agency within Social Structures and Culture*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20), 101.

45) Robert Banks, 『바울의 공동체 사상』, 319.

46) Urban T. Holmes, *A history of Christian spirituality*, 홍순원 역, 『그리스도교 영성의 역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32.

혹은 ‘교회의 도덕적 증인됨을 위한 상호작용 모델’에 속한다.⁴⁷⁾

이것은 제자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지녀야 할 사회윤리의 방향성을 말해주는 동시에 제자도에 근거한 사회적 영성을 통하여 한국기독교가 윤리 성숙을 추구해야 한다는 당위를 말해준다.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한국기독교에서, 사회적 영성이 제자도의 구현에 속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더구나, 공감과 환대, 공격 책임과 소통과 같은 사회적 영성을 제자도를 통하여 읽는 것이 어떤 독창성을 지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울의 경우는 사회적 영성이 제자공동체의 과제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한다.

흥미롭게도, 이제까지의 바울연구가 바울이 제시한 가르침의 사회적 맥락과 기능을 무시해왔다고 비판한 믹스는 하늘의 시민권과 관련하여 바울의 도시적 맥락을 연관짓는다.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머물러 가는 외인이자 그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지만 세상에서 물러나 은둔하지 않았으며 세상을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았다.”⁴⁸⁾ ‘에클레시아’의 용법을 친착한 경우도 있다. 바울이 시민정치적 함의를 지닌 에클레시아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역 공동체의 삶에 적용시켰다는 점에 주목하는 관점이다.⁴⁹⁾

덕 윤리와 관련하여 살펴볼 것은 바울이 덕을 뜻하는 ‘아레테’를 빌립보서 4:8-9에서 단 한 번 사용했으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레테를 권한 것은 스토아철학자들의 그것과 달리 성령의 도우심을 비롯한 신학 및 세계관의 차이를 전제하면서도

47) Victor Paul Furnish, *The Moral Teaching of Paul: Selected Issues*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9, 3rd edition), 161-162.

48) Wayne A. Meeks, *The First Urban Christians*, 박규태 역, 『1세기 기독교와 도시문화: 바울 공동체의 사회문화환경』(서울: IVP, 2021), 329.

49) 박영호,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에 담긴 시민공동체의 유산과 바울의 비전』(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10.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공공의 영역에 관심하는 삶을 권하려는 취지로 읽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공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적 삶의 탁월성을 높이고 그 유익을 세상과 공유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은 인상적이다.⁵⁰⁾

유사한 맥락에서, 고린도교회의 문제와 해결책을 밀실과 광장의 이미지로 읽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레꼬-로마의 광장윤리를 적용하고 발전시키고 있으며 개인의 몸과 에클레시아의 몸을 연결시켜 개인의 구원, 영성, 도덕성, 성화 등을 중요시하는 개인적인 하나님을 선포해야 하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 관계를 공적 영역으로 이어가는” 통찰을 주었다는 주장이다.⁵¹⁾ 이 논의 역시 공적 영역에 대한 관심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좋은 삶(eudaimonia, human flourishing)의 추구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이 책은 바울이 그리스-로마의 덕 윤리 전통과 대화하면서 선한 삶의 텔로스에 대하여 기독교적 재정의 내렸다는 점을 다룬다. 이 과정에, 몇 가지 주목할 것이 있다. 첫째, 좋은 삶이란 단지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 공동체적이며 사회적이고 심지어 정치적인 프로젝트이다. 바울이 빌3:20에서 좋은 삶을 구성하는 사회적 맥락을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낸 것이 그 흔적이다. 둘째, 공동체에서의 시민권은 도덕적 변화 즉 성품의 함양을 요구한다. 바울이 아레테를 사용한 것은 단 한 번(빌4:8, 무슨 덕이 있든지)이지만,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politeuma)을 성품의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이자 그 결과물이라고 보았다. 셋째, 공동체에서의 갈등이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공동

50) 최승락, “바울의 덕 사상과 덕 철학의 접점 찾기,” 『성경과 신학』59(2011), 37~71.

51) 장계은, “밀실에서 광장으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의 교회론,” 『신약연구』16-4(2017), 176~207.

체의 보존이라는 일치된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다른 폴리스들 사이에서의 일치의 문제는 정치철학적 주제였다. 넷째, 좋은 삶의 추구는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의 연대와 관련된다.⁵²⁾

오늘의 시민사회에서는 책임과 소통의 문제로 읽을 수 있겠다. 시민사회와 공공성이라는 맥락에서 ‘공적 책임’(public responsibility)으로 이해된다. ‘공적 교회’의 개념을 통하여 기독교가 공적 영역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권한 후버(Wolfgang Huber)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겠다. 그리고 소통은 ‘담론윤리’(discourse ethics)와 연관지어 “타자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 확장된 소통의 개념을 가지고 그 안에서 공감에 대해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⁵³⁾ 이렇게 보면, 바울의 관심을 신앙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으로 읽을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는 ‘신앙의 사사화’(私事化, privatization) 극복과 연관된다.

이러한 논의들에서 아쉬운 것은 공동체적 맥락으로 확장된 바울의 제자도를 덕 윤리의 관점에서 충분히 조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책임과 소통을 사회적 영성으로 읽어내는 과정에서, 신앙의 공공성에 대한 관심을 공동체적 제자도의 맥락에서 재조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무엇보다도, 공동체적 성품화에 관심할 필요가 있다. 공적 책임과 소통을 추구하는 제자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그것을 교회공동체 안에서 성품화하려는 관심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덕 윤리를 통하여 바울의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기독교공동체주의로 확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우어위스가 말하는 덕의 학교이자 성품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됨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52) Pieter Vos, *Longing for the Good Life: Virtue Ethics after Protestantism* (New York, NY: T&T Clark, 2020), 3.

53) 홍성민, “타자와 공감영역: 인정과 환대의 사이에서,” 『한국프랑스학논집』107(2019), 304.

‘사회적 제자도’(social discipleship) 내지는 ‘공적 제자도’(public discipleship)에 대한 관심을 기독교가 사회에 동화되어 사회정책의 유효유 역할을 해야 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왜곡이다. 하우어워스를 소환하자면, 콘스탄틴적 결탁을 극복하고 교회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자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지닌 사회적 관심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실사회의 문제들로부터 도피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낼 것인지 아니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증언으로 사회적 현실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낼 것인지를 성찰해야 한다.”는 뜻이다.⁵⁴⁾ 이러한 주장들을 참고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신앙의 공공성을 위해 요구되는 책임과 소통이라는 사회적 영성을 제자도의 공동체적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2) 공감과 환대의 제자 공동체 되기

바울의 제자도가 공동체로 확장된 맥락과 관련하여, 공감과 환대의 덕목들은 사회적 영성의 관점에서 읽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다. 우선, 공감의 문제에서 바울의 로마서 12장 15절은 상징적이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바울의 권면은 제자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관심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사회적 영성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공감은 신경과학 및 엔트로피 이론에서도 주목해왔다. 바울의 관점은 이러한 연들과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공감은 ‘sympathy’에서 ‘empathy’로 이어지는 감정과정으로서, 거울신경세포가 촉발한다. 신경과학은 공감 능력의 차이와 다양성을 말해주지만, 어떤 가치평가를 내려

54) Glen Stassen and David Gushee, *Kingdom Ethics*, 신광은 외 역,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따름의 윤리』(논산: 대장간, 2018), 112.

야 할지를 안내하지는 못한다. 바울이 말하는 공감은 ‘compassion’에 가까운 것으로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가치”라고 할 수 있다.⁵⁵⁾ 공감을 제자도에 속하는 가치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교회의 공동체성과 연관을 지어 해석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공감은 가치중립적 개념으로서, 악에 공감하면 악을 행하게 되며 악에는 반감(anti-pathy), 혹은 무감정(a-pathy)이 작동한다. 교회는 성령의 공감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인이 사회와 맺는 사귄 영역까지 포괄하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그것이다.⁵⁶⁾ 이러한 해석들은 공감에 대한 신경과학의 논의를 넘어서는 부분이자 바울의 맥락을 통하여 사회적 영성을 말할 수 있는 단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들은 공감을 교회가 제자됨을 위해 실천할 덕목으로 읽어낼 가능성을 보여준다.

공감에 대한 논의는 환대(hospitality)의 문제와 어우러진다. 레비나스와 데리다로 이어지는 공감과 환대의 윤리는 타자 중심의 접근을 요청한다. 예를 들어, 환대를 칭의론과 연관짓는 해석도 참고할 수 있겠다. “환대가 파괴된 안디옥 교회의 식탁교제(갈 2:11-14)에 관심하면서, 바울의 칭의론이 정치적 근본주의가 양산한 배제와 차별의 논리를 혁파하는 타자의 윤리로 이끈다”는 주장이다.⁵⁷⁾ 이러한 흐름을 참고하면서, 덕 윤리를 통한 접근에서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보완하면 바울의 윤리에 관한 논의가 더 진전될 수 있겠다.

“환대는 기독교적 덕목의 목록에서 두드러진(prominent) 것으로서, 바울에게서 대표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다.”⁵⁸⁾ 사도행전과 서신들에서 바울

55) 신익상, “공감의 영성: 바울의 영성과 신경윤리와의 만남,” 『신학논단』83(2016), 193~224.

56) 박영범,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롬12:15): 공감교회론의 철학적 교회론적 기초다지기,” 『신학과 선교』53(2018), 41~81.

57) 정승우, “칭의론에 나타난 환대의 윤리,” 『대학과 선교』40(2019), 129~159.

계 복음전도자들이 순회하는 과정에서 관원들이나 집주인들의 보살핌을 받았다. “바울계 복음전도자들은 도시의 유대교회당에 찾아가서 안식일 예배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토론할 기회를 찾았다. 그곳에서 저항에 부딪히면 개인의 집에 머물기도 했고 그들에게 환대를 받았다. 이러한 뜻에서, 환대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에 속한다는 것이 특정한 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에 속한 이를 형제나 자매로 영접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한다.”⁵⁹⁾

나아가, 다른 에클레시아에 속한 자에 대한 환대를 넘어 낯선 자 모두에 대한 것으로 확장된다. 바울이 환대의 대상을 교회 안에 있는 자들과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두 그룹으로 분류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에클레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환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것에서부터 세상을 향한 것으로 확장되어 나아간다.⁶⁰⁾

환대에 대한 바울의 문맥 중 하나인 롬12장~15장은 환대하는 사랑 즉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공동체 밖이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한다.⁶¹⁾ 그 외의 사례들을 포함하여, 바울의 문맥을 통해 간추릴 수 있는 환대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 하나는 환대가 교회의 복음적 정체성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의 윤리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제자도의 공동체적 확장이라는 뜻에서, 환대는 사회적 영성의 핵심가치이다.

58) Wayne A. Meeks, *The Origins of Christian Morality: The First Two Centuries* (New He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93), 105.

59) Wayne A. Meeks, 『1세기 기독교와 도시문화: 바울 공동체의 사회문화환경』, 271.

60) Christine D. Pohl, *Making Room: Recovering Hospitality as a Christian Tradition*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9) 31. *참고로 이 책의 번역서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옥배 역, 『손대접』(서울: 복있는 사람, 2002).

61) Michael J. Gorman,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 395.

무엇보다도, “환대는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삶의 방식이다.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환영하신(welcomed) 것처럼 서로 환영하라고 권한 것은 환대를 복음의 근본적 표현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⁶²⁾ 환대는 낮은 자를 집에 들이고 음식과 쉼 곳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 그 이상의 “새로운 인간성을 향한 환영(welcoming one another to new humanity)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집(home)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인간성의 형성을 위한 공동의 환영(mutual welcome)이다.”⁶³⁾ 이것은 환대가 공동체적 지평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즉 교회의 복음적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뜻에서, 교회는 환대의 제자도를 실천하는 공동체이다. 그들은 낮은 자를 환대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손님(guest)으로 여겼다.⁶⁴⁾ 환대는 낮은 자에 대한 맹목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환대는 낮은 자와의 파트너십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환대의 과정에 속한 모두에게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준다. 초대자와 손님 사이의 일상적인 교환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이다.”⁶⁵⁾

환대에 관한 바울의 권면들에는 기독교 고유의 가치가 담겨있다. 바울에게서 환대는 교회의 중요한 덕목이 되었다.⁶⁶⁾ 이것은 환대를 단지 또 하나의 덕목으로 추가했다는 뜻이 아니다. 공감과 환대는 제자도의 실천 덕목이자 그리스도인다움의 표지라는 뜻이다. 환대는 하나님의 환대를 반영하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며 사람들 사이의 유대를 형성하게 하는 덕목이다.⁶⁷⁾ 다시 말해, 환대는 ‘신적인

62) Christine D. Pohl, *Making Room*, 5..

63) John Koenig, *Hospitality: New Testament* (Eugene, OR: Wipf & Stock, 1985), 52.

64) Christine D. Pohl, *Making Room*, 5.

65) John Koenig, *Hospitality: New Testament*, 2.

66) Daniel Harrington and James Keenan, *Paul and Virtue Ethics: Building Bridges between New Testament Studies and Moral Theology*, 186.

덕'(divine virtue) 내지는 신적 기원을 가진 덕으로서,⁶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환대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환대를 베푸도록 요구하신다.”⁶⁹⁾

나아가, 환대는 선택지가 아니라 제자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실천해야 할 과제이다. 은사를 받은 자에게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행해야 할 필수적인 행위이며, 성품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추구해야 할 제자도의 공동체적 가치이다. 환대는 하나님의 환대가 지닌 의미를 성찰하고 재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실천적으로도 인간의 필요를 채우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담금질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⁷⁰⁾

폴(Christine D. Pohl)의 지적에서처럼, 현대사회에서 환대의 신앙과 정신은 사라지고 환대사업(hospitality industry)만 남았다.⁷¹⁾ 18세기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환대의 신학적 의미를 상실하게 하였으며 신학자들조차 환대라는 용어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과 겹쳐 환대는 환대산업의 몫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대를 그리스도인에게 전해진 유산(heritage)로 기억해야 한다.⁷²⁾ 그리고 낯선 자에 대한 성경적 비전으로 돌아가야 한다.⁷³⁾ 레비나스와 데리다를 통하여 환대의 관심이 각성된 것을 의의가 크지만, 제자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구현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려는 노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67) Christine D. Pohl, *Making Room*, 29.

68) Hans Boersma, *Violence, Hospitality, And The Cross*, 윤성현 역, 『십자가, 폭력인가 환대인가』(서울: CLC, 2014), 55.

69) Joshua W. Jipp, *Saved by Faith and Hospitality*, 송 일 역, 『환대와 구원』(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21.

70) Christine D. Pohl, *Making Room*, 29.

71) 위의 책, 4.

72) 위의 책, 1.

73) 위의 책, 5.

3. 의의와 한계, 그리고 과제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확인된 사항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자. 바울에게 사회적 영성의 단초가 제자도에 있다는 사실을 풀어내기 위하여 하우어워스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덕 윤리를 응용한 데에는 의의와 한계가 병행한다. 우선, 덕 윤리가 바울의 제자도를 부각시켜 줄 유용한 솔루션이라는 사실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사실, 바울의 제자도가 명시적인 언급보다는 다른 표현 혹은 은유적 설명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바울에게 과연 제자도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 내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 덕 윤리를 통하여 바울의 제자도를 풀어낸 가능성을 찾아낸 것은 그 의의가 적지 않다.

하지만, 덕 윤리를 통하여 바울의 제자도를 다루는 과정에 한계 내지는 보완되어야 할 요소가 있다는 점 또한 놓칠 수 없다. 이 글에서 하우어워스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덕 윤리를 통하여 바울의 제자도를 살펴보는 과정이 자칫 덕 윤리의 프레임에 갇히는 것은 아닐지 비판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덕 윤리 자체에 대한 비판과 보완의 필요가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영성을 포함하는 도덕적 성장과 변화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덕 윤리를 통한 접근에서 은혜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굳이 변명(apology)을 하자면, 바울 르네상스를 편승하면서 덕 윤리를 적용한 것이 바울의 윤리에서 제자도의 중요성을 재론할 기반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공감, 환대, 책임, 소통과 같은 사회적 영성을 바울의 제자도에 근거하여 모색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회적 영성을 교회공동체에서 성품화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해 준다는 점 또한 의의가 적지 않다. 공감, 환대, 책임, 소통의 사회적 영성을 교회의 공동체적 관심사로 삼아

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하면, 덕 윤리에서는 덕이 공동체와 연관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사회학적 관심은 많지 않아 보인다는 비판도 귀담아들어야 할 듯싶다. 대표적으로, 맥킨타이어나 하우어워스의 경우에서 공동체란 무엇이며 구성원들은 성품의 형성을 위해 내러티브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역할, 구조, 기구,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뜻이다.⁷⁴⁾

이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아니겠지만, 열린 논제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덕에 관한 아시아적 문화에 익숙하거나 권태를 느끼는 나머지 기독교 덕 윤리가 제안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의 함양과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한 제자도의 실천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냉소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논제를 내어놓는 데에는 번영의 복음(gospel of prosperity)이 한국기독교를 주도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반영되어 있다.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한 제자됨을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번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황이 문제라고 하겠다.

나아가, 교회 안에서의 영성 혹은 내면적 영성에 만족한 나머지 사회적 영성을 간과하기 쉬운 한국기독교의 자화상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책임, 소통, 그리고 공감과 환대의 사회적 영성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자성해야 한다. 바울의 제자도에 관심하는 것은 이러한 실천적 어젠더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과 그 재론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74) Daniel K. Finn, ed., *Moral Agency within Social Structures and Culture*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20), 91.

III. 나가는 말

한국기독교에 절실히 요청되는 공감과 환대, 그리고 공적 책임과 소통을 비롯한 사회적 영성(social spirituality)에 주목하면서 이 글은 바울의 제자도에서 그 근거를 찾고자 했다. 바울이 제자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제자도를 비껴간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발단이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바울 르네상스에 편승하면서 새관점학과와 인문학자들이 촉발시킨 바울에 대한 재발견을 참고했다. 이러한 바울 르네상스의 의의를 평가하면서도 하우어워스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덕 윤리를 통하여 바울의 제자도에 주목하였다. 기독교 덕 윤리가 제자도를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의 함양이라는 관점에서 신앙인의 윤리를 촉진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접점이다.

바울의 제자도와 관련하여 두 가지에 주목했다. 그 하나는 바울의 제자도가 '다른 용어로 표현된 제자도'라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바울의 제자도가 '공동체로 확장된 제자도'라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바울의 사회적 영성을 공감과 환대의 제자도, 책임과 소통의 제자도라고 풀이하면서 이 글은 공동체로 확장된 제자도에 주목하지 못했거나 혹은 재발견이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포함한 덕목들 이외에 공감, 환대, 책임, 소통과 같은 덕목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내면적 혹은 교회적 영성에 주목하는 와중에 놓치고 있던 요소들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영성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다.

특히, 공감에 대한 논의는 환대의 문제와 어우러진다. 공감과 환대는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삶의 방식이며 기독교 고유의 가치를 담고 있다. 바울에게서 환대는 교회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적 덕목으로 인식된다. 또한 책임과 소통은 공공성에 대한 관심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공적 제자

도 혹은 사회적 제자도를 지향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그리고 공감, 환대, 책임, 소통의 사회적 영성은 제자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함양해야 할 과제로 인식된다.

이러한 논의는 덕 윤리의 프레임을 따라 바울의 제자도를 끼워맞추려는 시도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바울이 제자도를 비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평을 개인을 넘어 공동체적 맥락으로 확장시켜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에서 기독교 덕 윤리가 지닌 의의는 결코 적지 않다. 이러한 논의의 지향점은 분명하다. 바울의 제자도에 대한 관심을 재론함으로써 한국기독교의 자화상을 성찰하게 하며 번영의 복음을 넘어서야 할 과제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 영성을 지향하는 논의로 확장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의 영성 혹은 내면적 영성에 만족한 나머지 사회적 영성을 간과하기 쉬운 한국기독교의 자화상에 대해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용규. “주체와 윤리적 지평: 바디우와 아감벤의 바울론을 중심으로.” 『새한영어 영문학』 51-3(2009), 87~116.
- 김진호 외. 『사회적 영성』. 서울: 현암사, 2014.
- 박명림. “사회적 영성, 내면윤리의 사회적 구성.” 〈복음과 상황〉 2017.1.26. 일차.
- 박영범.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롬12:15): 공감교회론의 철학적 교회론적 기초 다지기.” 『신학과 선교』 53(2018), 41~81.
- 박영호.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에 담긴 시민공동체의 유산과 바울의 비전』.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 신익상. “공감의 영성: 바울의 영성과 신경윤리와의 만남.” 『신학논단』 83(2016), 193~224.
- 장계은. “밀실에서 광장으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의 교회론.” 『신약연구』 16-4 (2017), 176~207.
- 정승우. “칭의론에 나타난 환대의 윤리.” 『대학과 선교』 40(2019), 129~159.
- 최승락. “바울의 덕 사상과 덕 철학의 접점 찾기.” 『성경과 신학』 59(2011), 37~71.
- 현경식. “바울의 오이코드메 윤리.” 『신약논단』 10-2(2003), 367~389.
- 홍성민. “타자와 공감영역: 인정과 환대의 사이에서.” 『한국프랑스학논집』 107(2019), 304.
- Banks, Robert. *Paul's idea of community*, 장동수 역. 『바울의 공동체 사상』. 서울: IVP, 2020.
- Gorman, Michael J. *Cruciformity*, 박규태 역.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0.
- Hauerwas, Stanley. *A Community of Character*, 문시영 역. 『교회됨』. 성남: 북코리아, 2010.
- Hays, Richard B. *Moral vision of the New Testament*, 유승원 역. 『신약의 윤리적 비전』. 서울: IVP, 2002.
- Jennings, Ted W. *Reading Derrida: Thinking Paul*, 박성훈 역. 『데리다를 읽는다 바울을 생각한다』. 서울: 그린비, 2014.
- Kotva, Joseph, Jr. *Christian case for virtue ethics*, 문시영 역. 『덕 윤리의 신학적

- 기초』. 성남: 공홍, 2012.
- Longenecker, Bruce W., and Still, Todd D. *Thinking Through Paul*, 박규태 역. 『바울: 그의 생애 · 서신 · 신학』. 서울: 성서유니온, 2019.
- McKnight, Scot. and Modica, Joseph B. eds. *The Apostle Paul and the Christian Life*, 최현만 역.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인의 삶』. 평택: 에클레시아 북스, 2018.
- Meeks, Wayne A. *The First Urban Christians*, 박규태 역. 『1세기 기독교와 도시 문화: 바울 공동체의 사회문화환경』. 서울: IVP, 2021.
- Pohl, Christine D. *Living into Community*, 권영주 외 역. 『공동체로 산다는 것』. 서울: 조이선교회, 2021.
- Wilkins, Michael J. *Following the Master*, 황영철 역. 『제자도 신학: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도』.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5.
- Wright, Nicholas Tom. *After you believe : why Christian character matters*, 홍병룡 역. 『그리스도인의 미덕』. 서울: 포이에마, 2010.
- Besser-Jones, Lorraine, and Slote, Michael, eds. *The Routledge Companion to Virtue Ethics*. New York, NY: Routledge, 2015.
- Furnish, Victor Paul. *Theology and Ethics in Paul*. Louisville, K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9.
- _____. *The Moral Teaching of Paul: Selected Issues*.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9.
- Harrington, Daniel J. and Keenan, James F. *Paul and Virtue Ethics: Building Bridges Between New Testament Studies and Moral Theology*. Lanham, ML: Rowan & Littlefield Publishers, 2010.
- Hauerwas, Stanley, *The Peaceable Kingdom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1.
- Koenig, John, *Hospitality: New Testament*. Eugene, OR: Wipf & Stock, 1985.
- Longenecker, Richard N., ed., *Patterns of Discipleship i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6.
- Lovering, Eugene H, Jr., and Sumney, Jerry L., eds., *Theology and Ethics in Paul and his Interpreters*. Eugene, OR: Wipf & Stock, 2017.

- Meeks, Wayne A., *The Origins of Christian Morality: The First Two Centuries*. New He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93.
- Pohl, Christine D., *Making Room: Recovering Hospitality as a Christian Tradition*.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9.
- Smith, Julien C. H., *Paul and the Good Life: Transformation and Citizenship in the Commonwealth of God*. Waco, TX: Baylor University Press, 2020.
- Stiltner, Brian, *Toward Thriving Communities: Virtue Ethics as Social Ethics*. Winona, MN: Anselm Academic, 2016.
- Thompson, James W., *Moral Formation according to Paul: The Context and Coherence of Pauline Ethics*.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11.
- Vos, Pieter, *Longing for the Good Life: Virtue Ethics after Protestantism*. New York, NY: T&T Clark, 2020.

논문투고일: 2022년 02월 06일

심사개시일: 2022년 03월 14일

게재확정일: 2022년 04월 01일

• 국 문 초 록 •

이 글은 시민사회의 제자윤리를 모색하기 위하여 바울의 제자도에 주목한다. 공감과 환대를 포괄하는 사회적 영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맥락에서, 이 글은 사회적 영성에 관한 산발적 논의들을 기독교윤리학에 통합하여 시민사회에서의 제자됨의 윤리를 추구한다. 특별히, 이 글은 한국기독교를 주도해온 ‘번영의 복음’과 ‘잘되는 영성’에 나타난 신앙의 사사회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적 영성을 사사회된 영성의 대안으로, 그리고 시민사회의 제자윤리로 읽어낸다. 공감, 환대, 책임, 소통은 시민사회에서 제자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함양하고 구현해야 할 제자윤리이다. 바울이 제자도의 지평을 공동체적 맥락으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제자윤리에 대한 교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한국기독교는 바울의 공동체적 제자도에 나타난 사회적 영성에 관심함으로써 신앙의 사사회를 극복하고 시민사회의 제자윤리를 구현해야 한다.

주제어: 제자도, 사회적 영성, 공동체, 덕 윤리, 바울
